



JARA NEWS

January 2017, No. 107

from
Japan Automotive Recyclers Alliance
www.jara.co.jp

Published by JARA Corporation
Tokyo Head Office: Shinawa Bldg. 1-2-2-7F
Nihonbashi, Chuo-ku, Tokyo JAPAN 103-0027
Phone: +81 3 3548 3010 / Fax: +81 3 3231 4690

‘일본 국내 시장을 한 해’ 자동차 재활용

신차 수요의 축소에 수반되는 사용 후 자동차(ELV)의 발생 감소, 폐차 유통 경로의 변화, 스크랩 시세의 침체, 중고차 수출의 증가에 의한 매입 가격의 고가 유지, 부품 수송비의 급등... 2016년의 자동차 재활용 업계는 ‘어려운’ 상황이 겹겹이 쌓여 가는 일 년이었다. 자동차 리사이클링법의 시행으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관련 사업자의 경영을 직격. 전국에서 도산, 폐업이 잇따랐다. 한편, 올해는 재활용 업계가 다시 성장 계도에 오르기 위한 태동이 시작된 일년이기도 했다. 내년은 현 상황에서 이어지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업계가 미래에까지 존속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 같다.

ELV 인수 대수를 총괄하는 자동차 리사이클링 촉진센터(JARC)는 애초, 2016년도 전체에 걸친 인수 대수에 대해 ‘소비세 증세가 시행되면 330만 대 정도, 연기되면 11만 대 정도 다소 낮아질 수 있다’ 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4~11월 실적은 200만 6,079대. 현시점에서는 ‘306만 대를 조금 넘는 정도’이며 더욱더 낮아지리라 예상된다.

ELV의 인수 대수가 감소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신차 수요의 축소에 수반되는 해체차의 발생 감소와 활발한 외수를 배경으로 한 중고차 수출의 증가이다. 특히 연간 100만 대를 가볍게 넘는 중고차 수출의 영향은 크다. 이와 같은 대수 규모뿐만 아니라 ‘수출 차량의 평균 차령은 9, 10년. 이에 대해 ELV는 14·9년. 즉, 본래 일본에서 ELV가 되어야 할 차량이 수출되고 있으며, 인수 차량이 수출에 의해 침식되고 있다’ 는 것이 인수 대수 발생 감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JARC는 ‘내년 이후에도 ELV 발생

대수의 감소가 이어진다’ 라고 지적한다.

자동차 재활용 업계에는 내년도 장래에 있어 불투명 감이 감돈다. 그럼에도 관련 사업자는 재활용 부품의 생산이나 판매 확대, 인재 육성의 강화는 물론, 정밀한 해체의 추진, IT화에 의한 업무 효율화 등으로 필사적인 자조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올해는 각 단체가 그룹의 울타리를 넘어 협조하며, 굳건하게 단결된 업계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일본 ELV 리사이클 기구(ELV 기구)는 11월 18일에 ‘업계 관계 단체 교류회’ 를 개최. 전국의 관련 14단체의 간부와 행정인 한 곳에 모였다. ELV기구의 사카이 야스오(酒井康雄) 대표이사는 ‘업계 전체의 의견 집약이나 정보교환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획을 업계 안에서 실시해 나가는 것이 ELV기구의 역할로서 중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간다고 한다.

내년은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차종의 구매 시에 재활용 요금을 할인하는 ‘에코 프리미엄카 제도(가칭)’ 의 제도 설계가 본격화된다.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지식인과 자동차 제조업체, 사용자 대표, 재생 플라스틱 제조업체, 자동차 리사이클링 촉진 센터 등이 참가하는 작업 부회를 설치. 11, 12월에 2번의 회합을 개최했다. 2018년도 이후의 실시를 목표로 내년도는 재생 플라스틱의 사용량이나 비율, 질의 담보, 차종 등의 상세한 부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밀한 해체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성과보수 제도의 검토도 시작되고 있어, 자동차 재활용 행정을 둘러싼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 12월 22일)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 교통 정보도, 자동차운전 고도화에 기대

정부는, 행정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가속한다. 12월 7일에 성립한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에 근거하는 체제를 마련해, 중점 분야를 결정하여 2020년까지의 집중적인 대치를 재촉한다. 자동차운전(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로 이어지는 교통 관계 데이터도 유력 후보다.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은, 행정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온라인 절차를 확대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거나 하는 것이 목적. 앞으로, 아베 신조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 회의를 설립하여 기본계획의 책정을 시작한다. 19일에 열린 미래 투자 회의에서도 이러한 방침이 표명되어, 아베 총리는 ‘인프라, 데이터를 철저히 개방하여, 국민의 힘을 결집해 새로운 유망 시장을 창출해 나간다’ 라고 말했다.

자동차운전(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개발이 추진되는 자동 주행용 지도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후보가 된다. 표식이나 백선, 설치물 등 도로 관계 외, 도로 공사 정보, 사고나 정체의 발생 상황, 신호기의 점등 정보 등이 개방되면, 지도의 편리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갭신 비용도 내려간다. 정부는 또한,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철도나 버스 등 공공 교통기관이나 기상 정보, 역이나 상업 시설 등의 정보를 통합한 위에 개방해, 외국인을 포함한 경기 관전자나 이동 제약자의 원활한 이동에 유용하게 쓸 생각이다.

교통관계 데이터의 활용은 정부에 의한 ‘관민 ITS(고속도로 교통시스템) 구상·로드맵’ 에도 포함되어 있다. 신법에 근거하여 추진 체제가 마련되는 것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더 가속화 될 것 같다.

(일간 자동차신문 12월 21일)



ELV의 발생 대수는 앞으로도 감소를 이어갈 전망



「ありがとう」を
たくさんもらえる会社へ

<http://www.jara.co.jp/>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하여 신산업을 창출



중심이 되어 관련해 왔다. 한편으로 급속히 진보하는 자동운전(자율주행) 기술은 사고나 정체를 줄이는 것만이 아닌 물류업의 일손부족이나 과소지의 교통 수단 확보, 도로의 역주행 방지 등 폭넓은 사회적 효과가 예측된다. 장래적으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콤팩트 시티 등의 도시 계획에도 관계하기 때문에, 부처 내 연계를 한층 더 진행하며, 정책 효과의 최대화나 사업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성도 있어, 자동차나 석유업계에서는 반발도 예상된다.

(일간 자동차신문 11월 30일)

국토교통성, 자동운전 전략본부가 첫 회합

국토교통성은 12월 9일, 자동운전(자율주행) 전략본부의 첫 회합을 부처 내에서 열었다. 본부장을 맡은 이시이 게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성 대신은 ‘자동운전(자율주행) 분야에서 일본이 세계를 리드해 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정세나 기술개발의 동향, 사회 요구를 적확하게 파악하면서, 국토교통성이 국제기준 등의 규칙 만들기나 기술의 보급 촉진, 사회 실험, 실장(実装) 등의 대처를 가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며, 세계에 앞선 자동운전(자율주행) 기술의 개발이나 보급에 의욕을 나타냈다. 동본부는 앞으로, 2018년도의 개산 요구를 고려하여 내년 여름까지 중간보고를 정리한다.

동본부는 이시이 국토교통성 대신 이외에 선진안전 자동차(ASV)의 개발이나 기술 기준 만들기 담당하는 자동차국, 도로 인프라 정비나 역주행 방지를 담당하는 도로국,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국 등의 국장급과 공공교통 정책부장, 물류 심의관이나 관광청 장관 등으로 구성. 본부 산하에 ‘환경 정비’ ‘기술개발·보급 촉진’ ‘실증 실험·사회 실장’의 3개의 실무 그룹을 마련했다. 당면의 검토 사항으로서 차량에 관한 국제기준의 책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과 사고 시의 배상 규정 만들기, 트럭의 대열 주행이나 ‘미치노에키(道の駅, 국도휴게소)’ 를 거점으로 한 자동운전(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 실험에 임하는 것 등을 결정했다.

정부의 ITS(고속도로 교통시스템) 개발 계획에는 지금까지, 국토교통성의 자동차국과 도로국이

환경성은 이번에도, 2015년도 일본의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CO2) 환산으로 전년도 대비 3.0% 감소의 13억 2,100만 톤(속보치)이었다고 발표했다. 2년 연속의 배출 감소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확대나 원자력 발전 재가동에 수반되는 전력 유래의 CO2 배출량의 감소 등이 영향을 주었다.

2015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도 대비 5.2% 감소, 2013년도 대비 6.0% 감소. 정부는 올해 5월에 각의 결정한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20년도에 2005년도 대비 3.8% 이상, 2030년도에 2013년도 대비 26%를 각각 삭감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야마모토 고이치(山本公一) 환경성 대신은 6일의 내각회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방심하는 일 없이, 대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일간 자동차신문 12월 9일)

환경성, 탄소세도 시야에 가격제도 도입을 검토

환경성은 29일, 온실 효과 가스를 가격으로 환산하여 배출 삭감으로 이어가는 ‘탄소 가격’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1월에 검토회를 설치하여, 해외의 유효 사례나 온난화 억제 효과 등을 논의한다. 배출량 거래 이외에 유럽에서 도입되고 있는 ‘탄소세’도 시야에 넣지만, 경제 산업성이나 산업계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야마모토 고이찌(山本公一) 환경성 대신은 같은 날의 회견에서 분명히 밝혔다. 야마모토 환경성은 ‘탄소 가격 제도는 세계의 조류’ 라고 하며,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환경성은 과거에 ‘환경세’ 구상을 밝혔지만, 경제산업성이나 산업계의 반발로 도입을 단념하며, 그 대신에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으로 석유석탄세에 포함하는 추가 조치가 취해진 경위가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산화탄소(CO2) 배출은 전원 구성이나 기술, 인구나 세대 수, 경기 동향 등에 영향을 받아 탄소 가격의 영향은 한정적이다’ (산업기술 환경국)라며 탄소 가격 제도에 부정적인 견해다.

또한, 가솔린 등에 부과되는 ‘당분간세율’(구 잠정세율)이 탄소세 명목으로 고정화될 가능

테슬라 모터스, 완전 자동운전을 전제 모델X에 카메라와 센서

전기 자동차(EV) 제조업체인 미국 테슬라 모터스는, 동사의 첫 SUV인 ‘모델 X’에, 완전 자동운전(자율주행)을 전제로 한 8개의 카메라를 비롯하는 하드웨어를 미리 탑재하여, 올해 말에 일본 국내에서 자동차 납품을 개시한다. 카메라, 초음파 센서 등을 출하하는 모든 차량에 장비해, 고객의 자동운전(자율주행) 옵션의 선택이나, 소프트웨어의 진화, 법규제의 동향 등에 따라 기능을 살리는 형태를 취한다.

모델 X는 뒷쪽 도어가 위쪽으로 열리는 팔콘 윙이라는 독자적인 보디 구조를 채용해, 1천만 엔급의 고급 SUV 시장에서 EV로서의 기반을 쌓아 올리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가격은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895만~1,649만 2천 엔(소비세임).

일본 법인인 테슬라 모터스 재팬(니콜라스 빌리저(Nicolas Villeger) 사장, 도쿄도 미나토구)은 1일, 나고야시를 기점으로, 언론용 모델 X의 시승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같은 날, 일본에서 12번째가 되는 전용 급속 충전 시설을 기후 하시마(岐阜羽島)에 개설했다.



PLACE AD

Advertiser wanted!
 Advertise your excellent products and services to readers in the automotive recycling industry around the world!
 Contact with JARA Corp.
<http://www.jara.co.jp/>

CO2 삭감 수치 (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6년 11월

3, 185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 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전생애 환경평가기법(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KOBELCO

We Save You Fuel
Achieving a Low-Carbon Society

コベルコが提案する 新しい考え方

マルチ解体機

使用済み自動車の解体以外にも廃家電などの金属製機器の解体およびさまざまな複合廃棄物の解体・分別作業が可能です。

自動車解体機

使用済み自動車に含まれる素材の分別作業がスピーディーに行えて希少金属資源の回収が可能です。



SK135SRD



SK210D

コベルコ建機株式会社
www.kobelco-kenki.co.jp/

For Japan

新构想源于神钢

多功能拆除机

不仅可以拆除不再使用的汽车，还可以拆除家电等金属制机器以及各种复合废弃物的拆除、分类作业。

SK210D



汽车拆除机

可快速进行报废汽车内素材的分类作业，能够回收稀金属资源。

SK210D



成都神钢工程机械(集团)有限公司
www.kobelco-jianji.com/

For China

新构想源于神钢

多功能拆除机

不仅可以拆除不再使用的汽车，还可以拆除家电等金属制机器，以及进行各种复合废弃物的拆除、分类作业。

SK200



汽车拆除机

可快速进行报废汽车内部素材的分类作业，得以回收稀有金属资源。

SK200



FAIR FRIEND ENTERPRISE CO.,LTD.
www.ffg-tw.com/

For Taiwan

새로운 발상은 KOBELCO에서

멀티 해체기

응도 폐기된 자동차의 해체 외에도 폐가전제품 등 금속제 기기의 해체 및 다양한 복합 폐기물의 해체·분리작업이 가능합니다.



SK135SR

(주)삼정건설기계
www.samjung-kenki.co.kr/

For Korea

New ideas come from KOBELCO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vehicle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SK210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U.S.A. INC.
www.kobelco-usa.com/

For North America

New ideas come from KOBELCO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vehicle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SK135SR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AUSTRALIA PTY LTD
www.kobelco.com.au/

For Australia

New ideas come from KOBELCO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vehicle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SK210D



Car-Dismantling Machine

Car-Dismantling Machine efficiently separates and sorts raw materials in end-of-life vehicles and is able to recover rare earth metals.

SK210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EUROPE B.V.
www.kobelco-europe.com/

For Europe